

요즘 대세 하윤경·주종혁 '고맙다 우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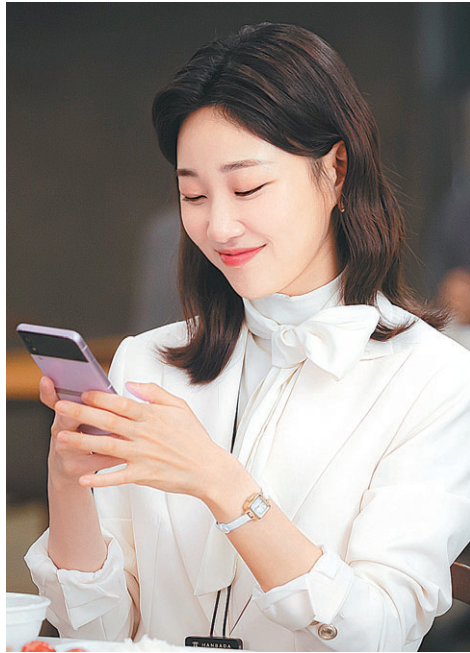
인기 얻은 조연들 스타 반열 올라
하윤경 SNS 팔로어 150배나 폭등
주연 제안 등 러브콜, 차기작 앞뒤

인기 드라마의 힘이다.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조연들이 주연의 자리를 넘볼 만큼 시선을 끌고 있다. 하윤경, 주종혁, 전배수 등이다. 이들은 주연으로 나선 박은빈과 강태오 못지않은 시청자 관심을 받으며 활동 영역을 넓힐 준비에 한창이다.

●SNS 팔로어 150배 '경총'

하윤경과 주종혁은 극중 자폐스펙트럼 장애 변호사 우영우(박은빈)와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 최수연, 권민우 역을 각각 맡았다. 저마다 '봄날의 햇살', '권모술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인기 캐릭터로 떠올랐다. 정의로운 성격의 하윤경은 부정 취업을 의심받는 우영우 대신 목소리를 내주며 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주종혁은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우영우를 시기하는 캐릭터로 등장해 안방극장의 애정 어린 미움의 시선을 받고 있다.

2015년 데뷔해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2020년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이름을 알린 하윤경은 최근 '이변



배우 하윤경, 주종혁, 백지원(왼쪽부터) 등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안방극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ENA

생도 잘 부탁해' 등 미니시리즈의 주연 제안을 받고 있다.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가 첫 드라마인 주종혁도 조만간 차기작을 확정할 방침이다.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1위에 오르면서 해외 시청자 관심도 받고 있다. 드라마 방송 이전 3000명이었던 하윤경의 SNS 팔로어가 11일 현재 47만 8000명을 넘겨 150배 이상 폭등한 것이 방증이다. 주종혁도 1만 명에서 26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의 SNS 계

정에는 영어, 스페인어 등으로 '우영우'를 언급한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전배수·이봉련 등 베테랑도 변신

역할 비중이 크지 않은 베테랑들은 이미지 변신이 나왔다. 전배수는 우영우를 지적정성으로 키운 미혼부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tvN '철인왕후', KBS 2TV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등에 이어 연달아 딸을 키우는 아버지를 연기한 점이 새삼 화제를 모으면서

'딸 바보 전문'이라는 수식어도 얻었다.

우영우가 속한 법무법인 한바다의 대표 백지원, 인권변호사 역으로 특별출연한 이봉련 등도 푸근한 엄마 캐릭터에서 벗어나 날카로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11일 "단순히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고 해서 주변 캐릭터까지 주목받는 사례는 드물다"면서 "이 드라마가 각 캐릭터의 서사를 풍성하게 그려내며 매력에 살려낸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한산 vs 헌트...여름 시네마 흥행 대결 양상구도

'외계+인' '비상선언' 나란히 부진
'한산' 15일 만에 500만 관객 돌파
'헌트' 첫날 박스오피스 1위 꺾자

여름 극장이 흥행 경쟁의 최종 막이 올랐다. 지난달 20일 '외계+인'을 시작으로 '한산: 용의 출현'(한산), '비상선언', '헌트'까지 한 주 차이로 나란히 개봉한 한국 영화 '빅4'가 마침내 모두 극장에 걸렸다. 하지만 '외계+인'과 '비상선언'이 이미 사실상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10일 개봉한 '헌트'가 흥행에 힘입어 '한산'의 유일한 대항마가 될 전망이다. 이에 어떤 작품이 극장이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장의 최종 승자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헌트' vs '한산' 최종 2파전

첫 주자로 나섰던 '외계+인'과 뒤이어 '비상선언'이 관객의 뚜렷한 호불호 평가에 발목이 잡히면서 올해 여름 시장 흥행 대결은 '헌트'와 '한산'의 2파전 양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4주 동안 140만 관객을 모으는 데 그친 '외계+인'은 10일 현재까지 누적 150만여 명, '비상선언'은 170만여 명에 가까스로 닿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난달 17일 개봉한 '한산'은 15일 만인 9일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흥행 속에 개봉 3주차에도 멀티플렉스 CJ CGV의 실제 관객 평점 시스템인 '골드에그' 지수 95점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해상 전투신이 안겨주는 쾌감을 체험하기 위한 4DX 등 특수상영관 재관람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헌트'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

미 개봉 첫날 21만 관객(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모아 12만5000여명의 '한산'을 꺾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빅4' 중 '한산'(38만 명), '비상선언'(33만 명)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첫날 흥행 수치가지만, '골드에그' 지수는 94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헌트', "100점 만점에 94점"

지난달 27일 연 시사회 이후 '헌트'에 쏟아진 언론과 평단의 호평이 관객에게도 이어진 셈이다. 당초 최동훈(외계+인), 김한민(한산), 한재림(비상선언) 등 흥행 감독들의 신작이 쏟아지는 여름 극장에서 '최약체'가 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막상 열어보니 최고의 복병이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전일 영화평론가는 "가장 기본 좋은 반전을 안겨준 작품"이라며 "1980년대의 군사정권 시대상을 과장과 미화 없이 담아내며 스파이들의 장르적 매력까지 살렸다"고 평가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도 "올해 가장 인상적인 연출 데뷔작"이라며 "훌륭한 시작으로 손색없는 포트폴리오가 될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정재·정우성의 헤어질 결심', '중년의 시멘트 에리' 등 두 주인공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기를 바라보며 흥행을 담은 리뷰가 쏟아지고 있다. 관객 후기를 담은 각종 '밈'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윤 평론가는 "'범죄도시2'가 손석구의 인기로 폭력적인 범죄액션물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여성 관객까지 끌어당겼던 것처럼 이정재·정우성의 호흡이 첩보액션물을 즐기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시청자 눈길 잡아라' OTT 콘텐츠 이색 홍보전

쿠팡플레이 새 시트콤 채용 공고
입사 지원 시청자에 다양한 선물
티빙 '개미가...'는 유튜브 손잡아

각 방송사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수많은 작품이 쏟아지는 콘텐츠 홍수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잡기 위한 '홍보 전장'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선점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홍보 프로모션을 펼쳐 눈길을 끈다.

26일 공개하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트콤 '유니콘'이 대표적이다. 제작진은 스타트업 회사를 배경삼은 시트콤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실제 회사처럼 꾸몄다. 시트콤에 대한 설명 대신 극중 회사 '맥콤'이 개발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회사 최고경영자(CEO)로 등장하는 신하균을 사내 니케임인 스티브로 기재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채 지원' 모집 공고도 냈다. 100자 내외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MD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실제 모집 공고와 똑같다"는 일부 시청자들의 지원 후기(?)들이 SNS에서 주목받으면서 마케팅 효과까지 덩달아 누리고 있다.

주식을 소재로 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개미가 타고 있어요'는 2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 '슈가월드'와 손잡았다. 제작진은 채널 운영자인 슈카(전석재)가 주식투자자 관련 상식과 '꿀팁'을 전하는 강의를 10분 남짓 영상으로 담아 매회 방송할 예정이다. 12일부터 해당 영상을 유튜브로도 공개기로 해 주식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연출자 최지영 PD는 "최근 격동하는 주식 시장 세태와 개인 소액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시청자에 더 가깝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JTBC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는 이승엽, 박용택, 정성훈 등 야구 스타들이 뭉친 '최강 몬스터즈'의 시합을 시청자에게 직접 공개한다. 28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최강 몬스터즈 대 U-18 야구 국가대표팀 경기의 관람권을 시청자 대상으로 판매해 5000장이 1분 만에 매진됐다. 유지혜 기자

"시민과 소통 강화"...초심 잡는 '1박2일'

14일 '15년 역사 특집' 계기 변화
시즌1 첫 촬영지서 주민들과 미션

최근 방송 15주년을 맞은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지방곡곡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각종 게임을 하면서 가깝게 호흡했던 프로그램의 특색을 되살리겠다는 각오다.

제작진은 7월에 이어 14일 방송하는 '15년 역사 특집'을 변화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 특집은 2007년 8월 5일 첫 방송한 시즌1의 첫 촬영지인 충북 영동에서 15년의 역사를 되짚는다. 모든 시즌에 참여한 가수 김중만이 당시 마을 이장 부부를 만나 첫 촬영의 추억을 떠올렸다. 배우 연정훈·나인우, 방송인 문세윤, 가수 단딘 등 다른 멤버들도 마을 주민들과 팀을 이뤄 다양한 미션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연출자 이정규 PD는 11일 "초반 시즌의 핵심이었던 시민들과의 소통을 다시 늘리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앞선 시즌들은 방송인 강호동·이수근, 개그맨 김준호, 배우 차태현 등 출연자들이 시



KBS 2TV '1박2일 시즌4'의 한 장면.

민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재미를 이끌어냈다. 시즌1·2의 조연출 경험이 있는 이 PD는 "연정훈 등 출연자들이 2019년 12월 시즌4에 합류하자마자 감염병 사태가 심각해져 시민들과 점점을 좁혀 만들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서둘러나마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뜻뜻하면서 새롭게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라며 변화를 반기고 있다. 기존 멤버였던 가수 라비가 5월 하차하고, 제작진 일부가 교체되는 등 각종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팀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해 '팬덤 다지기'에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PD는 "멤버들이 '우리가 재미있는 걸 꾸준히 해나가자'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유지혜 기자

One pick UP & DOWN

김가람 "학교폭력 가한 적 없어"

르세라핌 탈퇴 후 첫 입장문... "그때의 나 미치지 않아"



김가람

'BTS 여동생'으로 주목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17)이 학교 폭력 가해 논란으로 팀에서 탈퇴한 지 21일 만에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혔다. 그는 11일 지인으로 추정되는 SNS를 통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면서 "저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에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그동안 달려온 꿈이 깨질까 봐 솔직히 겁이 났던 게 사실이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를 향한 많은 비난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누군가를 괴롭히고 왕따를 시킨 적도 없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학생이었다"고 주장했다. 김가람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A씨가 속옷 차림의 다른 친구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징계 5호 처분 받았던 혐의록 원문과 '사안 개요 설명서'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그때 피해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했고, 저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다"며 "그 당시 저의 방법은 잘못됐고 여러 실수와 서툰 행동은 있었지만, 그때의 저를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데뷔 후 2주간은 저에게 꿈만 같은 순간이 됐지만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프의 첫 걸그룹으로 화제를 모았던 르세라핌의 김가람은 데뷔전부터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 논란으로 지난달 20일 전속계약 해지되며 팀에서 탈퇴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현진영 '흐린 기억...' 저작권 30년만에 되찾아

가수 현진영이 1992년 히트곡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저작권을 30년 만에 되찾았다. 11일 현진영 측에 따르면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저작권자로 현진영이 추가됐다. 현진영은 2집 '뉴 댄스 2'의 타이틀곡인 이 노래를 댄스듀오 '탁2준2'로 함께 활동한 이탁과 함께 만들었으나 이탁만 먼저 저작권 등록을 했다. 이후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면서 저작권을 정정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최근 연락이 닿으면서 작사·작곡·편곡자로 현진영이 공동 등록됐다.

에스파 '걸스', 걸그룹 최다 음반 판매량 신기록

걸그룹 에스파가 두 번째 미니앨범 '걸스(Girls)'로 역대 케이(K)팝 걸그룹 최다 음반 판매량 신기록을 달성했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8일 발매한 '걸스'가 7월 써클(전 가온차트) 월간 앨범 차트에서 164만5255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앞서 걸그룹 최다 누적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블랙핑크의 정규 1집 '디 앨범'의 기록을 넘긴 수치다. 에스파는 이번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 3위로 진입, 올해 케이팝 걸그룹 최고 순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홍윤화, 촬영중 십자인대 파열...수술 불가피"

개그우먼 홍윤화가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다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홍윤화가 전날 tvN스토리 '씨름의 여왕'을 촬영한 후 왼쪽 무릎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결과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술 일정을 논의하고 있고, 수술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프로그램 일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